

광주 4일째 추가 확진 '0' ...신천지 전수조사에 성패 달렸다

시설 강제폐쇄 행정명령 발동

골든타임 확보 확진자 조기발견 격리

신천지 예배·집회·행사 금지

신천지발 코로나19 사태 초기 확진자가 7명까지 발생했던 광주에서 타 자치단체와 달리 4일째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광주시의 초기 대응이 주목받고 있다.

광주시는 27일 신천지측과의 1단계 협력 대응을 통해 초기 대규모 확산을 막는 ‘골든타임’을 확보했다고 판단,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한 2단계 고강도 대책으로 ‘신천지 시설에 대한 강제폐쇄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5개 구청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1단계 협력 대응이 마무리됨에 따라 2단계 대응 전략을 구사해 감염 확산 방지의 완결성을 높여겠다”고 밝혔다.

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날부터 3월 11일까지 신천지 관련 모든 시설에 강제 폐쇄 명령을 내렸다.

광주시는 그동안 5개 자치구와 공동으로 신천지로부터 확보한 교회, 선교센터 등 92곳을 선제적으로 폐쇄·방역조치 했으며, 이후 추가 조사를 통해 신천지 신도 또는 교육생이 오고 가는 소규모 시설 9곳을 추가로 파악하고 이날 강제폐쇄 명령 조치에 나섰다.

시는 매일 수시 점검을 펼친 결과, 이미 폐쇄된 시설 중에서도 폐쇄 안내문이 훼손되거나 바 오는 날 우산이 꽂혀있는 등 폐쇄·통제가 완전하지 않은 상황도 포착하고, 추가로 폐쇄 조치를 진행 중이다.

시는 앞서 지난 20일 밤 9시께 신천지 신도 중 광주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하자 다음날인 21일 곧바로

신천지 관계를 포함하는 유관기관 TF대책 회의를 열고, 지난 16일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에 참석하거나 참석자와 접촉한 신도수를 파악하는 등 긴급조치를 내렸다. 전국 자치단체 중 신천지 관계자를 유관 기관 회의에 끌어들이 초기 대응에 성공한 사례는 광주시가 처음이다.

시는 이를 통해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 참석자 11명의 명단을 확보한 뒤 곧바로 감염여부를 검사해 확진자 4명을 조기 발견하고 격리조치했다. 또 신천지로부터 추가로 7차례에 걸쳐 이들과 접촉한 신도 114명의 명단을 넘겨받아 이 중 3명의 추가 확진자를 발견하는 성과를 냈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발생 초기 신천지로부터 고위험군 명단을 빠르게 확보한 것은 매우 적절한 조치였다”면서 “다만 이미 전국적으로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하고 있고, 또 장기화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앞으로는 좀 더 강도 높고 꼼꼼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이용섭 시장은 “신천지 교회 특성상 발생 초기 바로 강제조치를 하면 음성화해 대응이 비효율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발생 초기 신천지 관계자가 참여한 테스크포스를 가동해 협력했다”며 “어제는 신천지를 통한 초기 대응이 마무리된 만큼 지역사회 감염을 막기 위한 강도높은 조치(행정명령)들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신천지 주요 시설에 대한 CCTV를 확보해 분석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5개 자치구, 경찰과 합동으로 3인 1조로 11개 팀을 구성해 신천지 시설과 관련 의심시설 등에 대한 집중 감시활동에 돌입한 상태다.

시는 신천지 예배와 모임은 물론 시, 자치구, 공공기관이 직접 개최하거나 인허가하는 집회·행사와 공공기관으로부터 장소를 빌려 진행하는 다중 집합 행사도 금지 조치했다.

시는 또 이날부터 민간영역이나 사적 공간에서



광주시가 27일 신천지 시설에 대해 강제 폐쇄 행정명령을 발동한 가운데 광주 북구 신천지 베드로 시성전(광주교회)에 경찰과 공무원들이 시설 폐쇄 스티커와 행정처분 문서를 붙이고 있다.

이뤄지는 대중집회 및 행사 등에 대해 시민 스스로 자제해 줄 것을 권고했으며, 3·1절 기념행사와 기념식도 모두 취소했다.

이 시장은 “지난 4일 광주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뒤 전 직원이 보건소장이라는 비상한 각오로 코로나19 퇴치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시대의 고비마다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 낸 광주시민의 저력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해 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정부 마스크 보급 차질... “물량확보 1~2일 더 걸려”

약국·우체국·농협 시민들 헛걸음

“생산업체와 계약 문제로 늦어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마스크 품귀 현상에 대해 이르르면 27일 오후부터 약국과 우체국, 농협을 통해 마스크 350만장을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다.

이날 전국에서 마스크를 구하러 우체국·농협·약국을 찾은 시민들은 “마스크 안 팔아요”라는 응답에 발을 물려야 했다. 정부가 약속한 마스크 공급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스크 공급을 위해서는 물리적으로 전국 145개 마스크 생산업체와 우체국, 농협 간 공급계약을 맺은 후 유통과정 등 최소한의 물량확보 시간이 필요한데, 정부가 과욕을 부린 탓이다.

정부는 물량확보에 최소 1~2일 이상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며 이날 긴급브리핑을 통해 세부 공급 계획을 공개했다. 이런 우왕좌왕 탓에 코로나 19 확산으로 가뜩이나 불안한 시민들이 헛걸음했다. 정부는 마스크 1매당 판매가격은 원가에 유통비용을 덧붙여 1000원대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강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긴급브리핑에서 “어려 조치에도 아직 마스크 수급 불안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그는 “생산업체와 공적 판매처 간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이번 주말까지 하루 이를 더하면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까 한다”면서 “확보된 물량이 현장에 실제로 공급되고

(국민들이) 살 수 있는지 공무원들이 몇 개 조로 나눠 현장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관계자는 “전국 145개 마스크 생산업체와 우체국, 농협 간 매치해 26일 밤을 새워 공급계약을 체결토록 하는 등 물량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면서 “계약을 맺은 뒤 생산하고 물류창고를 거쳐 판매처까지 가려면 하루 이를 정도 시차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전날 이르르면 이날 오후부터 공적 판매처 출고분 500만장 가운데 240만장을 전국 2만4000여 약국에 100장씩 공급하고, 110만장은 읍면지역 우체국 1400곳과 서울·경기 외 지역 농협하나로마트 1900곳에 우선 공급하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의료기관과 대구 의사회에는 하루 50만장씩, 대구·경북 지역에는 하루 100만장씩 총 500만장을 추가 공급하며, 잔여분은 추후 공영홈쇼핑 등 온라인을 통해 판매하기로 했다. 1인당 구입 가능 수량은 5매다.

하지만, 실제로 농협은 이날 오후 대구·경북 지역 하나로마트에서 마스크 판매를 시작한 것 외에는 아직 약속한 물량을 공급하지 못했다. 약국 역시 이날 공적 확보 물량을 판매하지 못했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직접 협상의 주체가 되는 농협이나 우정사업본부와는 달리 약국은 직접 협상하지 않고 의약품 유통업체 ‘지오영’에서 협상을 담당한다”며 “마스크 물량이 풀리는 것은 약국마다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약국의 경우 오늘 저녁부터 내일까지는 배송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시·도 공무원 2000여명 동원 직업·건강상태 등 일일이 확인

광주·전남 신천지 신도 전수조사

“전화조사만으로 한계” 지적도

광주시와 전남도가 신천지가 정부에 제출한 전국 신도 명단을 토대로 지역 신도들을 대상으로 1차 전수조사를 마무리했다.

우려와는 달리 신천지 신도들도 대체로 전수조사에 협조적이었다는 게 시·도 관계자들의 말이다. 광주시는 27일 오전 9시 분청, 종합건설본부, 상수도사업본부 등 소속 공무원 1400여명을 동원해 전화문진을 시작했다. 통보된 명단은 2만2880명으로 애초 파악한 2만6715명보다 4000여명이나 적었다. 광주시가 5378명으로 추정된 ‘예비신도’도 빠졌다.

전남도 이날 신천지 신도 1만3597명을 대상으로 22개 시·군과 긴급 전수조사에 나섰다. 조사는 시·군별로 전남공무원들 지정(1인당 신도 20~30명)해 신천지 교회 측에서 지정한 잠관인 입회 하에 전화를 이용해 이뤄졌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날 시장·군수와 가진 영상회의를 통해 “전남은 아직 도내 신천지 관련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지는 않지만, 감염자가 지역사회에 유입돼 폭발적으로 늘어나면 감당이 어려울 수도 있다”며 “시·군은 책임감을 갖고 신속한 조사와 함께 코로나19 예방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시·군별 교인 숫자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지만, 순천이 6000여명으로 가장 많고 여수·목포가 각각 3000여명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군 지자체 공무원 600명이 동원돼 1인당 20~30명의 교인을 맡아 전화로 본인 확인과 직업, 건강 상태 등을 점검했다. 공무원들은 인적 사항 등 본인 확인을 한 뒤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초등학교 근무자 등 고위험 직업군에 해당하는지 묻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지난 16일 전후로 신천지 대구교회와 정도 대남병원, 광주 확진자가 거쳐 간 남구 주월동·월산동 교육 센터에 방문하거나 확진자와 접촉했는지 여부를 질문한 뒤 본인 또는 가족 중에 발열, 기침, 목 아픔 등 증상자가

있는 지도 확인했다. 또 두 차례 전화에도 연락이 되지 않은 신도에게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후에도 통화가 되지 않을 경우 경찰의 협조를 받기로 했다. 시·도는 이날 호흡기 증상을 호소하는 신도에 대해 선 보건소 등과 연결해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본인 진술에만 의존한 전화 전수 조사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또 신도 수가 애초 알려진 것보다 적고 교육생이 명단에서 빠진 점도 전수 조사의 신뢰도나 완결성을 떨어뜨린다는 의견도 있다.

신도들이 자신의 신분소출이나 동선 공개 등을 꺼려 위험 지역 방문, 확진자 접촉 사실, 증상 발현 등을 제대로 답변하지 않더라도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 무증상 확진자가 섞여 있을 경우엔 더 큰 문제다. 가족이나 지인 등으로 감염이 확산할 수도 있어서다. 이 때문에 추가 방문 조사 등을 통해 가족까지 발열 등 증상 측정을 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유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옥상지붕공사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특허청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

신세계안과 의/학/상/식 특 특

3대 실명질환! 당뇨망막병증이란?

◆ 당뇨망막병증

당뇨망막병증은 당뇨병으로 인해 시력에 가장 중요한 망막조직에 문제가 발생하는 병으로 성인 실명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당뇨병으로 인해 혈관 주위 부종과 출혈이 발생하게 돼 시력저하가 일어나는 병입니다.

◆ 증상

당뇨망막병증은 초기, 중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으며 시력이 정상인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점차 심해져 맑기가 되면 신생혈관에서 출혈이 생기면서 시력이 저하되고, 시야에 별레나 먼지 같은 무언가가 떠다니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거나 커튼을 친 것처럼 가려 보이는 증상, 광시증, 눈부심 등이 동반됩니다. 등이 동반됩니다.

◆ 종류

당뇨망막병증은 크게 비증식성과 증식성 2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비증식성은 망막의 혈관이 점점 약해지며 혈청이 새거나 혈관이

막히며 망막의 영양 공급이 끊겨 시력이 나빠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당뇨망막병증 환자 대부분 비증식성 당뇨망막병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식성은 비정상적인 혈관들이 나타나 증식하고, 유리체 출혈을 일으키기도 하며, 섬유혈관막이 증식하면 망막을 잡아당겨 망막박리가 생기기도 합니다.

◆ 치료

당뇨망막병증 치료는 진행시기와 상태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집니다. 초기에는 철저하게 혈당조절을 함으로써 당뇨망막병증을 억제하고, 여기에 망막혈관을 보호하고 추가적인 손상을 막기 위해 꾸준히 망막영양제 혹은 망막혈액순환 개선제 등을 복용하면서 주기적으로 경과를 관찰합니다. 당뇨망막병증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에는 레이저 치료나 주사치료, 초저체절제술 및 유리체절제술 등 수술적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신세계안과 1566-9988